

- 주요 뉴스: 미국 주요 국채금리, 강한 상승세 지속. 9월 FOMC 경계감 등이 반영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 금리상승 등이 주요 원인
 - ECB 부총재, 향후 추가 금리인상은 경제지표 등이 좌우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 프로젝트 촉진을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FOMC 앞두고 변동성 장세 연출

주가 상승[+0.7%],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전망 선반영 및 저가매수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거래량 감소한 가운데 소폭의 등락 지속
유로화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2%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큰 폭 금리인상 전망에 '11년 4월 이후 최고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5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89.4원, -4.2원) 0.2% 하락, 한국 CDS 상승

		9/19일	9/16일	전일대비			9/19일	9/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99.9	3,873.3	0.69%	국채 금리 10y	미국	3.49%	3.45%	4bp
	유럽	407.87	408.24	-0.09%		독일	1.81%	1.76%	5bp
	중국	3,115.6	3,126.4	-0.35%	CDS 5y	한국	34bp	33bp	1bp
	일본	휴장	27,568	-		중국	76bp	75bp	1bp
	한국	2,355.7	2,382.8	-1.14%	위험 지표	EMBI+	-	433	-
달러지수	109.60	109.76	-0.15%	VIX		25.76	26.30	-2.05%	
유로화	1.0024	1.0016	0.08%	WTI유		85.73	85.11	0.73%	
환율	엔화	143.21	142.92	-0.20%	원자재	구리	355.8	356.1	-0.10%
	위안화	7.0050	6.9870	-0.26%		금	1,675.8	1,675.1	0.05%
	원화	1,393.6	1,388.0	-0.4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요 국채금리, 강한 상승세 지속. 9월 FOMC 경계감 등이 반영

- 9/19일 2년물 금리는 15년 만의 최고치인 3.94%(+7bp) 기록. 10년물 금리 역시 '1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3.50%를 일시적으로 상회. 다만 이후 하락하여 3.49%(+4bp)로 마감
- 이번 결과는 고강도 통화긴축의 장기화 가능성 등이 배경. 특히 9월 FOMC를 앞두고 3회 연속 0.75%p 인상 가능성 등이 제기. CME Fed 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는 연말에 4.25~4.50%에 이르고, 내년 3~5월에 4.50~4.75%까지 상승하면서 정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한편 장기간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긴축이 결국 심각한 경기둔화 혹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금리역전 현상이 심화. 2년물과 10년물, 2년물과 30년물의 금리차는 각각 -44bp 및 -46bp로, 이들은 모두 '00년 이후 최대
- 다만 Vanguard의 John Madzyre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국채가격의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 특히 과거의 경우 연준의 마지막 2회 금리인상을 남겨둔 시점에서 국채가격이 바닥을 확인했다고 설명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 금리상승 등이 주요 원인

- 해당 지수는 46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하락. 이번 결과는 모기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기인. NAHB의 Jerry Konter는 최근 금리상승과 높아진 주택가격 등으로 잠재적 매입자들이 매입을 늦추고 있다고 분석

■ ECB 부총재, 향후 추가 금리인상은 경제지표 등이 좌우

- 데 쿼도스 부총재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진단
- 한편 엔리아 은행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 수 년 동안의 자본축적과 최근의 금리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로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 다만 향후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자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ECB,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축소할 방침

- 개별 기업의 성과, 목표, 기후 관련 정보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회사채 매입에 활용할 계획. 이러한 조치의 주요 목적은 기후 관련 금융위험에 대한 유로시스템의 익스포저 축소

■ EU,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 도입을 제안. 기업들은 우려 표명

- 유럽위원회는 비상 상황에서 유럽에 거점을 둔 기업에게 주요제품 우선 생산, 제품 비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의 필요성을 제시. 다만 기업들은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면 기존의 계약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또한 이는 EU의 월권행위라고 비판

■ 독일 중앙은행, 경기침체 신호가 점차 증가. 라우 전쟁 등이 영향

- 월간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면서 관련 물가의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 그 동안 대규모로 축적한 가스는 에너지 배급제 시행이 필요 없도록 돕겠지만, 3/4분기 총생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

- 자금 제공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국내 소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 또한 지금은 경제 회복 여부의 기로에 있는데, 경제지표들이 최근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지만 국내 회복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진단

■ 중국 인민은행, 14일물 역레포 금리를 인하. 분기말 대비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

- 해당 금리를 0.10%p 낮추고(2.25%→2.15%) 이를 통해 100억위안을 공급. 또한 7일물 역레포 금리도 인하하여 20억위안 공급.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8월 대출우대금리 인하 등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20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 미국 8월 주택착공 및 건설지출, 유로존 7월 경상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 안정 강화, 중국과의 분리를 촉진 - WSJ

(Supply-Chain Decoupling From China Gets Sharper Teeth)

-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 고리가 완전하게 분리되는 구조는 불가능. 하지만 양측 간 갈등 심화 등으로 경제적 관계는 점차 약화될 소지. 이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최근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강제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베트남, 멕시코 등의 역할이 확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기업과 소비자는 공급불안 완화의 혜택을 얻지만, 더 많은 비용 지불이 필요할 전망

■ 중국의 성장둔화, 글로벌 경기둔화 초래 여부 관련 의견은 상반 - Financial Times

(Are China's problems global problems?)

- 최근 중국의 핵심 경제 문제인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시장 침체의 여파는 상당 부분 국내로 국한. 또한 일부에서 중국은 원자재를 제외할 경우 해외수입이 적어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
-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글로벌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며 경기심리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 아울러 역사적으로 글로벌 주기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시현했다고 지적

■ 미국의 對中 관계, 합리적인 위험전략을 구사할 필요 - Financial Times

(America needs a proper risk strategy for its relations with China)

■ 연준, 물가안정 위해 실질금리를 고려한 통화정책이 요구 - WSJ

(The Fed Can't Reduce Inflation by Winging It)

■ 중국, 러시아의 의존 증가서방의 결속 강화 등으로 국제관계 부담 증가 - Financial Times

(Putin, Xi and the limits of friendshi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